

한 출판인의 '아름다운 퇴장'

문학과지성사 대표직 사임한 김병익씨

문학과지성사는 1975년 출범한 이래 문학출판의 '종가'를 자임하며 모범적인 출판사로 성장해왔다. 이 전통의 출판사를 진두지휘해온 김병익씨가 최근 대표직을 후배 동인에게 물려줘 화제가 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문학과지성사를 지탱해온 문학적 동질성이 '유전' 되기를 바라는 김대표의 깊은 뜻이 담긴 용단이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문학과지성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익씨(62, 문학평론가)가 그렇다. 그가 퇴임 직전,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이형기 시인의 시구에서 한치의 모자람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은 신경을 썼겠다군요. 출판활동을 오래 지속한 것과 이룩한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이런 문화적 의미를 높이 평가해준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거철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 열풍 속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신선하게 보였나 봅니다.”

출판계에 남긴 세가지 업적

언론의 각광에 대한 자체 분석이다. 그런데, 그의 용되는 ‘아직 이르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실제로도 주위의 만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표직 사임을 강행했다. 되물릴 수 없는 순리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1990년대 중·후반 문학과지성사의 상황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 IMF로 인한 도매상의 연쇄부도, 새로운 기획에 따른 투자부담 등이 겹쳐 한때 출판환경이 위축됐습니다. 그때 넘겨줬으면 상당히 미안할 뻔했는데 호전된 재정상태로 물려줘 다행입니다.”

김병익씨는 이문열의 《변경》, 황지우의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등이 잇달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큰 도움이 됐으며, 작가와 독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1975년 출범한 문학과지성사는 지금까지 1156종의 책을 펴냈다. 발행부수는 840만부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통계 숫자 챙기기에 소홀했던 우리네 사정으로는 예외적인, 아주 믿을 만한 데이터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퇴장’에 환호를 보내는 언론들이 간과하는, 문학과지성사가 출판계에 기여한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병익씨는 이를 세가지로 꼽았다.

“첫째, 인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인세를 10%로 정하고 제대로 지급했지요. 둘째, 70년대와 80년대까지도 출판인들이 쇠와 판의 구분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희는 판과 쇠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셋째,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출판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학과지성》이나 《문학과사회》 수록작품을 다른 지면에 실을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했지요.”

여기에다 문학 출판사의 주식회사 체제를 선도하고, 경영권을 일가붙이가 아닌 후배동인에게 이양하는 사례를 남긴 것은 또하나의 업적이라 하겠다. 이 정도면 후배 출판인들에게 해줄 말이 적지 않을 터. 그러나 그는 충고 한마디 바란다는 질문에 손사래로 답한다.

“젊은 출판인들이 우리 세대보다 열심히 일하



김병익씨

고, 아이디어도 참신합니다. 나처럼 70년대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 새삼 충고할 게 없지요.”

후배 출판인들의 자세 높이 평가해

김병익씨는 젊은 출판인들이 ‘중간필자’를 개발한 것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그들의 지적 대중화 작업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김병익씨는 자기 세대는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이나 창작자의 작품만을 책으로 엮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술회한다. 또, 그는 출판기업 활동에 적극적인 젊은 출판인들의 자세를 높이 샀다. 그래서지 디지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아주 낙관적이다.

“디지털 세상이 아날로그 세계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을 둘러싼 논란은 한세대의 과도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익씨는 《출판저널》과 인연이 깊다. 3년간(1991. 2~1993. 8) 편집인을 맡았다. 그는 그 시절을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편집팀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일했지요.”

이제는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이 김병익씨의 정식 직함이다. 하지만 출판사에 늘 있는 건 아니다. 출근은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만 한다.

— 최성일 기자